

동아-윤정미 장학금 자기 개발 활동 보고서

60180152 구가온

저는 워킹홀리데이 경험에서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분야에 도전하면서 배워본 적 없는, 자신 없는 일이라도 애정을 가지고 임하여 성공을 이루었듯 자신이 없던 UI/UX 디자인에 도전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4년간 명지대에서 배운 전공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된지라 저에게 있어 금전적인 부담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제2회 동아-윤정미 장학금 활동을 통해 제 꿈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감사함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장학금을 활용해 UI/UX 디자인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보탬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기기로는 디자인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았으며, 색감에 민감한 UI/UX 디자인 분야에서 제 작업물을 만드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 프로그래밍에 적합한 기기로 교체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 후로는 오프라인 디자인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UI/UX 같은 디자인 분야는 포트폴리오가 취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질의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해 오프라인 디자인 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현직 디자인 실무자의 지도와 피드백이 필요한 것을 느꼈으며, 이를 위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학원에서 공부 중입니다. 매주 수업을 통해 디자인 기술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실무 경험과 기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금전적인 부담이 덜어져 더욱더 집중적으로 디자인 공부를 하는 중이며, 제 꿈이 좀 더 빨리 이뤄지는 데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성과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UI/UX 디자인 분야에서의 저를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잊지 않으며 제가 UI/UX 분야에서 앞으로도 열정과 노력을 다하여 제 꿈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